



서귀포 문화 브랜드 '이중섭' 이번엔 뮤지컬로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
9월 '이중섭의 메모리'
제주 출신 윤정인 작곡
10월엔 오페라 '이중섭'
2016년 초연 지속 보완



창작 오페라 '이중섭'. 사진=서귀포시 제공



이중섭의 생일에 맞춰 9월 16-18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초청 공연을 갖는 대구 맥씨어터의 '이중섭의 메모리'. 사진=서귀포예술의전당 제공

이중섭거리, 이중섭미술관, 이중섭에
술제 등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 중 하나인 이중섭(1916~
1956)을 이번엔 뮤지컬로 만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
관하는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
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하나
인 '문예회관 기획·제작 프로그램'
공모에서 서귀포예술의전당의 초청
공연 '이중섭의 메모리'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다불 수 있는 작품이다. 대구에 기반
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제주 출신 뮤
지컬 극작가이자 작곡가인 윤정인 맥
씨어터 대표가 작곡을 하고 극작에
참여했다.

2019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서
초연된 '이중섭의 메모리'는 이중섭
의 영혼인 L을 등장시켜 이중섭과 일
본인 아내 야마모토 마사코(한국 이

름 이남덕)와의 사랑 이야기, 그가 남
긴 그림과 편지에 배어있는 가족애를
그렸다. 이 과정에서 원산, 부산, 서귀
포 등이 배경으로 펼쳐진다.

공연 일정은 이중섭의 생일(9월
16일)에 맞춰 9월 16-18일 서귀포예
당 대극장으로 정해졌다. 2016년부터
매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
연기획 프로그램에 선정된 서귀포예
당은 이 무대에 대해 "제주 방언과
일본어를 활용한 자막과 영상을 통
해 공간적, 시대적 현실감을 더해줄

공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귀포예술단(서귀포관악단, 서귀
포합창단)이 출연해온 창작 오페라
'이중섭'은 10월 1-2일 서귀포예당
공연이 예정됐다. 이중섭 탄생 100주
년을 기념해 2016년 오페라로 초
연됐고 2019년 오페라 버전으로 새
롭게 탄생한 '이중섭'은 2019년 10
월 서울 오페라페스티벌 초청 등 매
년 무대를 이어오며 서귀포를 대표
하는 공연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진선희기자 sunny@halla.com

금빛 선율과 함께 '토요 힐링 콘서트'

서귀포관악단 앙상블 공연
2월 20일부터 연 5회 예정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원들이 앙상
블을 꾸려 코로나 시국을 건너고 있
는 서귀포 시민들을 음악으로 위로
하는 무대를 이어간다. 이달 20일부
터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시

작되는 '토요 힐링 콘서트'다.
'토요 힐링 콘서트'는 시민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연주회를 내걸
며 기획됐다. 서귀포관악단은 그동안
앙상블 공연으로 '봄의 소리', '윈드
앙상블과 함께하는 음악스케치' 등
일회성 무대를 가져왔으나 올해부터
는 서귀포예당 소극장에서 정기적인
음악회를 준비했다. 2월 20일에 이어

3월 20일, 4월 24일, 6월 26일, 9월
25일 등 총 5회 공연이 예정돼 있다.

첫 일일인 이달 콘서트에는 10명
의 단원들이 출연해 관객과 호흡하
며 기량을 선보인다. 공연 프로그램
은 폴 리더의 '빅토리안 키친 가든
모음곡' (클라리넷·하프 듀오), 장 바
티스트의 '듀오 콘체르탄트 작품
55' (색소폰 듀오), 차이코프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 (호른·피아노 듀
오), 샤를외 위규앙의 '오보에, 클라
리넷, 바순을 위한 3중주' (목관3중

주), 스콧 조플린의 '오보에, 클라리
넷, 바순을 위한 레그티모 댄스' (목
관3중주)로 짜여졌다.

관람료는 무료. 코로나19로 현장
관람 인원은 50명 이내로 제한했다.
지난 16일부터 서귀포예술단 홈페이지와 전화(064-739-0641)로 선
착순 예약을 받고 있다. 현장 연주
를 듣지 못하는 관객들을 위해 3월
2일부터 서귀포시와 서귀포예술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 영상을 공
개할 예정이다. 진선희기자

신예 연주자들의 패기 제주 무대에

KBS한전콩쿠르 입상자
제주아트센터 공동 기획
마스터클래스와 콘서트

주목받는 국내 젊은 연주자들이 제주
에서 패기있는 무대를 펼친다. KBS
한전음악콩쿠르 입상자 연주 프로그
램으로 이달 18일부터 23일까지 6일
동안 제주아트센터에서 스페셜콘서

트와 마스터클래스가 이어진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KBS한전
음악콩쿠르는 KBS와 한국전력공사
가 공동 주최해 젊은 연주자들을 후
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해외 유명 공연장과 공동 기획으로
입상자 연수를 진행해왔으나 이번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정 제주로 발길을
돌려 제주아트센터와 함께 준비
됐다. 제주에서 처음 개최되는 콩쿠르

연수는 마스터클래스와 스페셜콘서
트로 꾸려진다. 스페셜콘서트는 마지
막 날인 23일 오후 7시30분부터 예
정되어 있다.

마스터클래스는 입상자들의 발전
과 성장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트럼페터인 성재창 서울대 교수, 피
아니스트 김원 이화여대 교수 등 국
내 유명 교수들이 참여한다.
스페셜콘서트에는 543명의 지난
콩쿠르 지원자 중에 선발된 입상자
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만날 수 있
다. 주인공은 백승연(첼로) 이현준
(트럼펫) 이소정(클라리넷) 지윤진

(피아노) 신경식(비올라)이다. 이중
에서 이현준은 2019 제주국제관악콩
쿠르 1위 수상 경력이 있는 연주자
다. 이때는 제주출신 성악가 강해명
과 성재창 교수의 협연도 마련된다.
입상자들이 출연하는 스페셜콘서트
는 이달 21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마스터클래스 참관과 콘서트는 무
료로 진행된다. 다만 공연 관람 인원은
코로나19로 인해 300석 이내로 제
한했다.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64-728-1509)로 예약해야
한다. 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환관

<241>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오맹이 골맨, "송에기야 송에기야, 넘어넘이 아깝다.
즈네 골맨, 오맹이야, 넘어 넘어넘이 아까왕 허당 보민 똥 일
못한다게, 허저 송에기 출이영 물이영 쥐똥 정지래 왕 일 허술 도웨라.
오맹이 골맨, "예, 송에기 출 주곡 단들이 허영 가쿠다."
하르바지 골맨, "오맹이가 송에기 막 아까왕 허없구나. 경허주만
농시하는 집이선 송에기 질루쟁 허민 하영 오몽허게 허여사허때.
이디저디 운동도 시켜사 허곡, 땀나지 안 허게 허여사 허다."
오맹이 골맨, "예, 경 잘 허쿠다. 하르바지도 하영 도웨춤서양."

* 제주어 풀이

- *아까왕 허당 보민 : 귀여워 하다 보민.
- *똥 일 못한다게: 다른 일을 못한다.
- *허저(허저): <어저>어서 빨리.
- *출 : <이름>마소가 먹는 풀의 총칭. 풀.
- *쥐똥 : 주고서.
- *정지(정제, 정지) : <이름>부역.
- *허술 도웨라 : 조금 도와라.
- *단들이다 : <움직>어떤 일에 대해 어긋나지 않도록 단단히 잘 타일려두다.
- *농시하는 : 농사하는.
- *질루쟁 허민 : 기르려면.
- *오멍 허다 : <움직>움직이다. 몸을 움직여 나타나거나 일을 하다. 활동하다.
- *땀(땀) : <이름>땀.
- *땀 나지 안허게 : 땀 들지 않게.

고재만 화백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제
주도와 함께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
작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 지역 전시·관광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3개 기업
을 선정해 과제당 최대 1억9200만원
이내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진흥원
은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도민과 관
객 대상 문화향유 제공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2월 22일부터
24일까지다. 분사 사업자등록증 소
재자가 제주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
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문의 735-0622.

여성 예비창업팀 지원 사업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은 제주도와
공동으로 경력단절 등 제주 취약
계층 여성을 위한 '2021 여성공
동체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별인다.
이번 사업에서는 예비창업팀 5팀
을 모집해 창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이해 기본교육,
분야별 창업컨설팅과 창업아이템 설
계 지원, 여성공동체·(사회적)협동
조합·(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설립 지원 등에 나선다. 지원서 접수
는 지난 15일 시작돼 3월 10일까지
이뤄진다. 이달 17일 오후 2시, 24일
오후 2시엔 사업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문의 070-4177-8694.

석재부

- 불상전문제작 (제주중문에서)
- 비석→ 직접가공 및 설치
- 석물→ 일절완비
- 돌하루방, 물허벅, 해녀상 일절가공
- 제주 전시장 (중문고등학교앞)
- 납골묘, 평장묘 전문

장례부

- 1) 1급 장례지도사 5명 보유
- 2) 장의차량 리무진 및 장의차 7대 보유
- 3) 제주의료원 협력업체
- 4) 서귀포의료원 협력업체
- 5) 24시간 출동 대기
- 6) 장례용품, 도우미
- 7) 매장 및 화장, 이장

대표 박복현 010-3698-0402, 010-3693-4333 E-mail. qhrgus4333@hanmail.net

중문 석재 장의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834-5 Tel. 064-738-4333 Fax. 064-738-4336